



김 태일 제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몇 년 사이에 사회의 고령화 문제가 표면화 되고 있다. 치매국가책임제부 터 정년연장 문제까지 다양한 영역에 서 고령사회의 대응 논의가 거론되고 있다.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우리나라 는 OECD 국가중 가장 낮은 0.98 출 산율과 인구의 고령화율이 14.8%에 달한다. 인구유지에 필요한 최저출산 율이 2.1인 점을 고려하면 심각하게 고민해야할 부분이다. 특히 고령화율 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 고 있다는 점은 심각하게 받아들여 세 밀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한 시기다. 넓게는 의료보장, 소득보장, 주거보장 이라는 복지개념의 큰 틀에서 고령사

고령사회, 우리는 대비하고 있는가?

회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새판 을 짜야한다. 물론 국가차원에서는 대 통령 직속 저출산고령화위원회가 조직 돼 범정부차원에서 대응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대응도 매우 중요하다.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생활현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통합돌봄(Community Care) 정 책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시사하는 바 가 크다. 오랫동안 추진돼 왔던 도시 계획, 지역계획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 운 개념의 도시계획, 지역계획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때문에 도시와 건축, 복지부서 의 유기적인 협력체계구축이 중요해 질 수밖에 없으며 추진정책 역시 협력 적 관계 속에 성과를 거두어야 하는 것이다. 지역사회에 주목하는 것은 기 본적으로 병원과 시설중심의 돌봄이 아니라 자택과 지역중심의 돌봄에 둔 지역정주(Aging in place)에 있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쾌적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 조성과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정주 지원을 위한 4H(Housing, Help, Health & Hospital)에 입각한 정주환경 정비의 새로운 접근 이 필요하다. Housing(주택)은 안전 하고 편리하게 오랫동안 자신의 집에 서 거주할 수 있는 내부의 공간과 구 조물로 설계된 양질의 주택공급(고령 자용 주택)과 주거기능중심의 복지시 설(노인주거복지시설)의 제공을 의미 한다. Help(도움, 지원)은 주택에서 의 자립·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일상적인 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 는 것이다. 또한 Health(건강)은 약 간의 신체적인 기능저하가 있어도 지 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쾌적하게 거주 할 수 있도록 보건기능의 서비스를 제 공하는 시설의 정비가 필요하며 불필 요한 시설로의 입원을 줄이기 위한 예

방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그리 고 Hospital(의료)는 지역사회의 의 료시설과의 적절한 연계를 통해 필요 한 장소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 을 수 있는 환경정비를 들 수 있다. 해 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첫째 지역복지의 실천을 위해서는 고령자 의 보행권단위를 기반으로 집중적인 개선방안을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 이다. 둘째, 관련부서의 유기적인 협 력체계 구축도 선결과제다. 셋째, 지 역사회에서 보건, 복지, 생활지원체계 를 구체화, 체계화를 위한 지속적인 조사와 자료 축적도 병행돼야 한다.

제주도는 지역주민의 생활공간이자 관광객이 공존하는 공간, 도시와 농촌 의 기능과 성격이 혼재된 공간으로 독 특한 지역이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의 역할이 크다. 도시건축의 인프라 구축에 실패해 오랫동안 막대한 예산 을 투입,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고 있 는 일본의 사례는 타산지석이다.

뉴스-in

제주도 정무부지사 적임자 없나

후임자 인선 오리무중

○…안동우 제주도 정무부지사가 지난달 8일 사의를 표명했지만 한 달 가까이 후임자가 결정되지 않아 적임자를 못 찾은 것이냐는 관측.

안 부지사는 지난 4일 제주도 태풍 특별 지원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당분간 임기를 이어갈 것이냐'는 질문에 직접 언급을 피 하면서도 "태풍 피해를 비롯한 업 무에 충실히 노력하겠다"고 언급.

주변에서는 "적임자 찾기가 쉽 지 않은 모양"이라며 "태풍 복구 에 국정감사 등이 잇따라 업무 부 담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한마디. 이소진기자

'차타고 척척 민원센터' 성황

○…제주시가 지난 6월 3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차타고 척척 민원 센터'가 호응을 얻고 있어 눈길.

차타고 척척 민원센터는 주민등 록등·초본,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 명서 및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

(임야)대장 등 17종 제증명 서류를 차 안에서 앉아 신청하고 바로 받 을 수 있는 민원서비스로 이달 현 재까지 1일 평균 116건을 발급.

시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하는 등 인기가 높다" 며 "시민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지 속 추진하겠다"고 언급. 고대로기자

전국체전 감귤 선물 낭패

○…제100회 전국체전에 출전 중 인 제주선수단이 지난 4일 잠실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열린 개막식 때 관중석을 향해 감귤을 던져 선물했다가 낭패.

제주선수단에 따르면 이날 입장 선수단 중 일부가 감귤과 인형 등 을 관중석에 던지는 과정에 관중 석에 앉아 있던 고등학생이 얼굴 에 감귤을 맞아 서울시체전준비기 획단을 통해 멍이 들었다고 항의.

도체육회 관계자는 "입장을 마친 선수단이 착석 직전 관객들의 요구 에 선물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해 공식 사과했다"고 설명. 표성준기자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마냥 표류 걱정된다

제주시 동부하수처리장의 증설사 업이 기약없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습니다. 주민 반발로 2017년 12월 말부터 공사가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당초 계획대로 공사 가 진행됐다면 내년 준공인데 아 직도 진척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 제는 언제 공사가 재개될지도 불 투명한 실정입니다.

제주도는 2020년 준공을 목표 로 동부하수처리장의 증설사업을 추진했습니다. 1일 처리용량은 기존 1만2000t에서 2배 늘린 2만 4000t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공사가 중단된지 2년 가 까이 흐르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주민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 하면서 주민 반발을 불렀습니다. 동복쓰레기매립장의 침출수를 동 부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기 위한 관로 설치공사를 벌이다 들통나 면서 결국 중단 됐습니다.

알다시피 동부하수처리장은 이 미 과부하에 걸렸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닙니다. 1일 하수처리량이

현재 80~101%에 이르고 있기 때 문입니다. 방류수 수질도 그리 좋 은 편이 아닙니다. BOD(생물화 학적 산소요구량)와 COD(화학 적 산소요구량), T-P(총인) 수 치가 남원하수처리장보다 높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러잖아도 월정리 해녀들은 지 난해부터 생존권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하수처리장 때문에 바다가 오염돼 해녀의 삶이 위협 받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들은 2~3년 전만 해도 한번 물질 나가 면 100kg 이상 해산물을 채취했다 고 했습니다. 이제는 3~4kg 밖에 잡히지 않는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만큼 월정 바다가 황폐화되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는 겁니다. 동 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을 서둘러 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칫 하수대 란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주 도는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을 마 련해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행 정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어린이 인터넷・스마트폰 과다의존 우려

인터넷·스마트폰에 지나치게 의 존하는 제주지역 청소년들의 연 령대가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면 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인터 넷·스마트폰의 과의존을 호소하 는 나이 어린 상담자도 늘고 있습 니다.

제주도교육청이 2019년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조사 결과 과다사용은 전국 평균을 웃 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내 초등학교 4학년 6482명의 7.22% (468명)가 위험·주의 단계인 '과 다사용자'로 분류됐습니다. 전년 (7.4%)보다는 낮지만 2017년 (6.59%)과 비교 0.63%포인트 증 가했습니다. 이들 중 인터넷 과다 사용군은 최근 3년간 꾸준히 늘어 올해 11.6%에 이릅니다. 전국 평 균(10.59%)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과의존을 호소하는 나이 어린 상담자도 늘고 있는 점은 걱 정입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 제 주스마트쉼센터의 상담 인원 중 10대 전후의 비율은 올해 9월 기

준 63.46%에 달합니다. 2017년 57.15%에서 지난해 49.13%로 줄 었지만 올들어 급등했습니다. 이 들 상당수가 초·중학생인데다 2~ 3년 전에 비해 저연령 청소년 상 담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과의존 연령이 낮아지는 데 따른 디지털 역기능과 부정적 측면을 우려하 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린 나이 일수록 뇌의 균형있는 발달이 어 렵다고 합니다.

인터넷·스마트폰 노출은 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학교 현장에서도 디지털을 활용한 교 육은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그만 큼 디지털 사회 흐름에 따른 올바 른 이용문화를 확산, 정착시키키 기 위한 관심과 노력도 중요합니 다. 지나친 의존이 초래하는 부작 용을 알리고, 예방 프로그램 교육 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보다 근본적인 시각에서 교육청과 학 교, 가정, 지역사회가 연계 다양 한 해법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 습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콜

미국식품의학회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日本

30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윤 선 홍

제주 문화의 원류를 찾아 그 정체성 을 전승하며, 제주문화의 꽃을 피워 가는 제58회 2019탐라문화제가 10 월 9일부터 13일까지 제주시 탐라문 화광장에서 열린다.

이를 시작으로 국민들이 문화예술 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참여를 유도 하기 위해 정부가 정한 10월 문화의 달과 문화의 날(10월 셋째주 토요 일)에 펼쳐지는 '2019대한민국 문화 의 달'행사가 오는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제주시 산지천 주 변, 관덕정, 칠성로 아케이드, 제주성 지 등 제주시 일원에서 개최된다.

제주시는 '느영나영, 2019 대한민국 문화의 달 제주'라는 주제아래 '제주

의 미래' '문화의 미래' '함께하는 문 화'실현을 위해 행사를 펼친다.

기념식은 19일 오후 6시 30분부터 산지천 김만덕 기념관 앞에서 '수상 퍼포먼스'와 함께 도립 제주교향악 단 및 합창단, 도립 서귀포 합창단, 시민 발레단 등이 출연해 아름다운 제주의 하모니를 선사하게 된다.

아울러 행사 3일 동안 칠성로 상점 가에서는 아케이드 구조물을 이용, 환경 등 다양한 창작 작품들이 설치・ 전시되며 빈 점포들을 활용해 장르를 불문한 작가 및 일반 시민들이 참여 해 미니 갤러리, 미니 사진관, 미니 공연장을 운영하는 등 문화와 지역 상권과의 융합의 장을 마련한다.

제주성지에서는 시민들의 일상을 담은 영상, 지역 미술 및 문인 작가의 작품 등을 '미디어 아트전(시간의 벽)'형식으로 저녁시간대에 노출해 색다른 재미와 추억을 선사하며 매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운영 된다.

제주가 문화예술의 꽃을 피워낼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을 '2019 대 한민국 문화의 달'행사에 초대한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열린마당

'대한민국 문화의 달' 제주에 둥실

부 卫

고태하(개인택시) 어머니 연주 현씨 연옥(향년 89세)께서 서기 2019년 10월 5일 03시 8분경에 별세 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 ▶일 포:2019년 10월 7일(월) ▶ 발인일시: 2019년 10월 8일(화)
- 오전 6시 20분 ▶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3분향실**
- ▶ 장 지: 양지공원 → 난산선영

아 들고태하 며느리 강숙자

양인숙 태극

태신 김정화 고경선 사위김인현

> 경숙 황한성

※ 연락처: 고태하 010-8660-7300 고태극 010-3838-6633 고태신 010-9990-2375

부 卫

고성운(흥운기업) 아버지 제주 고씨 찬영(향년 89세)께서 서기 2019년 10월 6일 07시 45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 ▶일 포: 2019년 10월 7일(월) ▶ 발인일시: 2019년 10월 8일(화)
- 오전 8시 30분 ▶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4분향실**
- ▶ 장 지: **양지공원**

아 들고성운

창운 떠느리 김효정

딸 고금자 사위변관봉敞

복자 조성국®

문자 이우철

고선학 미숙

※ 연락처: 고성운 010-3693-0110 고창운 010-9661-1946 이우철 010-9546-0013 고선학 010-2971-0023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제주양씨 춘자 (향년 86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 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뵈옵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19년 10월 7일

> 아 들 강승보 며느리 현정애 박향춘 승욱 사 위 **이광우** 강승선

> > 송정균

승열

제주지방법원 판결공시

• 제1심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18고단15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피고인 임순빈

위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죄로 기소되었으나 공소사 실 중 각 메트암페타민 사용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의 점은 증거없음을 이유로무죄의 판 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 2019. 10.4 판사 최석문

제주도 토지 매매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평화로변

·생산관리지역 목장용지 ·494,244㎡(분할매매 가능) •2차선 도로접 시멘트 도로접

기타문의 전화요망 **22** 010-5110-5660

신생아 이름짓기, 개명 이름풀이, 신수, 택일, 궁합

작명원칙에 따라 개성있고 멋있는 이름을 짓습니다. 법학사, 행정학석사, 철학박사, 역학상담사, 작명사 1급

<mark>ᆟ귀포시 신협앞 송월타올 옆집</mark> 박용산 010-4464-3238

단열 4 0

5 712–3644, 782–3644 010-4690-3636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흘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전기차 사고 팝니다.

evworld_kr

전기자동차매매상사 <u>제주시 일주서로 7714(도두일동)</u> 1544-8236

계분 판매합니다. (배달가능)

무항생제인증, HACCP인증 받은 자연건조한 계분(산란계)판매

전 화: 064-796-6947 핸드폰: 010-3699-3344

신일농장, 제주팜 (주소: 제주시 한림읍 명상로106-7)